

# 전북 뭉 찾기로 도민 자존감 'UP'

### 도, 민선6기 마감 시점 맞아 지난 4년 성과 우수사례 발표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

전북도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주요성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17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민선6기 마지막 확대간부회에서 이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전 청원이 공유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모두 6개 분야 36개로 2014년 7월부터 2018

년 5월까지 민선6기 4년 동안 있었던 전북도의 성과 중에서 소관부서와 성과관리과의 1차 평가에 이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작업은 지난 4년 동안 도청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도정비전과 연도별 사자성어(四字成語)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화이부동(和而不同), 휴수동행

(携手同行), 무실역행(務實力行), 절문근사(切問近思)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이루어졌다.

최우수 사례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2018년 성과평가 전국 1위,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 유치, ▲전북 뭉 찾기를 통한 자존의 시대 개막, ▲삼라농성,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통한 농촌활력 창출, ▲의부채무 제로화 및 재정개혁 대통령상 수상,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과 군산-제주 항공기 및 군산-석도 카페리 운항 증편 등 8건이 선정됐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민선6기 4년 동안에 이룬 수많은 성과들은 도청 내 부서 간의 협업은 물론 시군, 유관기관, 정치권 등 모든 도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특히 지난 해 대선기간 '전북 뭉 찾기'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막혀있던 각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성과로 이어지는 등 민선6기는 전북 뭉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 전북의 가치를 키우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명예 전북도민증 수여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전하고 있다.

## 도내 중소 탄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지원

### 올해 제품 상용화 중심 공정기술 분야 집중 지원

### 열악한 경영환경 놓여있는 업체들 애로 해소에 도움

전라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연구원 이하 'KIST')은 탄소복합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IST에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복합재 생산 기업에 필요한 분석지원과 공정지원, 애로기술 컨설팅 등 3대 핵심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KIST에서 소재 부품 분석지원부터

공정지원까지 탄소복합재 개발 생산에 필요한 전주기 기술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ST는 3대 핵심분야 기업지원을 위해 내부 박사급 인력과 기업이 함께 하는 밀착형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 전북도선관위, 내일부터 선거구 안 주민등록 된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01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김진성 기자

## 송성환 도의원, 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패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 3)이 지난 16일 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동주, 도은숙)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성환 의원이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달 받게 되었다.

감사패를 받은 송성환 의원은 "도민께서 주는 뜻깊은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 공공기관 직무인턴 참여자 31일까지 모집

전북도에서는 도내 대학생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무인턴 참여자 87명을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의 전공 분야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2017년 상반기 직무인턴 운영 분석 결과, 기관의 자격요건과 신청자의 참여희망분야를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택 시 전공직무와의 적합성을 가장 우선시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턴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모집 내용을 공고하여, 신청 접수 하며 최종 선발 결과는 6월 중순경 도 대학 홈페이지

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인턴은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 전공 관련 지식 기술 분야의 일을 맡아 근무하며, 인턴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참여 인턴은 근무기간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인턴 신청자격은 전북 도내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이며, 신청방법은 도 홈페이지-배너(직무인턴 신청)를 클릭하여 참고서식을 작성,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특히, 인턴의 효율적 관리와 멘토(부서 담당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교육(OT)등을 추진하는 등 인턴십과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 예산서에 희망 담아

### 도, 도민 제안사업 공모 추진... 31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는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제안사업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삼라농성, 관광, 일자리, 청년, 문화예술 등 도정 핵심정책 또는 다수의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가 없는 경비, 특정지역·기관·단체의 지원을 위한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도내 소재 사업소 대표 및 임·직원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제안은 공모기간 동안 전라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방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6월에 관련 부서에서

법령 위반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7월 중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의 1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

1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9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전북도와 공동의사 결정을 통해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전북도는 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편성을 포함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격성을 갖춘 제안은 사업구체화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후보자 동향

### "광주정신 이어받을 것"

####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광주정신 계승과 민주시민교육·평화교육 강화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39년 전, 광주의 시민들은 군사독재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다"면서 "우리 진보교육감들은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아이들에게 민주·평화·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는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사악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면서 "시·도교육감들은 학생과 학교현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무너지면 혁신교육의 성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싸우고 버텼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은 "2016년 겨울, 깨어있는 시민의 힘은 부당한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부, 평화통일정부를 세웠다"면서 "국정교과서 음모는 저지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는 등 광주 정신을 이어받은 '촛불정부'는 우리 교육에도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평화·시민교육 강화 ▲남북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다짐했다.



/기동취재반

###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펀드 출시

####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번영과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펀드를 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문화로 번성하고 경제로 풍요로운 전주번영시대를 열고 선거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김승수 펀드'를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약정이 가능한 김승수 펀드의 목표액은 총 2억원이며, 1·2차에 걸쳐 투자를 받는다.

1차 펀드 모집은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액 1억원이 달성하면 조기 마감한다. 2차 모집은 6월 1일부터 목표액 달성 시까지 진행된다. 펀드 투자액에 대해서는 연 3.6%의 이자를 적용해 오는 8월 13일 상환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펀드를 통해 모아진 선거자금은 보다 투명하게 사용해 깨끗한 정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승수 펀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사이트(www.sufund.kr)에 들어가 회원 가입 후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에게 투자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기동취재반

### "이현용 후보 경선 수용"

####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

6·13 지방선거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엄윤상, 이현용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경선방식에 수용의사를 밝히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17일 평화당 전북도당과 두 후보 측에 따르면 전주시장 경선에 대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민과 당원 50대50'에 대해 후보들이 수용했다.

경선은 오는 19, 2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현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준비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이제 경선 방식이 결정된 만큼 혼탁 과열 경선보다는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든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엄윤상 예비후보도 보도자료에서 "평화당 전북도당이 지난 14일 전주시장 후보 경선을 기습 발표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책을 통한 정당당원 경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엄 후보는 이어 "전라공천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밀어주기 경선 등 구태정치 작태는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작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